



Contents

Summary	5
Part 1. 위대한 쓸림	7
Part 2. 숫자로 증명	21
Part 3. 위대한 쓸림 속 알파(α) 전략	31



The Great Concentration

1 위대한 쏠림

-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 비중 60% 돌파. 2000년 6월 이후 26년만. 코스피 Top2(삼성전자+SK하이닉스) 52%
- 삼성전자 1위 왕조 하에서 2등 기업의 시총 비중은 7%가 한계. SK하이닉스 25%에 근접
- 시장 쏠림 최고치이나, 방어적 로테이션은 모멘텀 반전 혹은 Crash의 전조가 보여야 접근

2 숫자로 증명

- 1Q26 3월말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 +28.7%, 순이익 +37.3% 상회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보더라도 1Q26 영업이익 74.3조원, 컨센서스 +13.7% 상회. 이익의 확산 기대
- [단일판매·공급계약] 2025~2026년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해외 계약금액 비율 상위 업종: 조선, 에너지, IT가전, 기계

3 위대한 쏠림 속 알파(α) 전략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 리밸런싱 매도 압력
- (IRC 851(B)(3) 분기말 자산분산 요건) 단일 종목 비중 25% 초과 금지, 5% 초과하는 종목의 합이 50%를 넘지 않게
- 리밸런싱 매도 압력 속 알파(α) 전략 = 외국인 익스포져 적은 종목(UW) 중 외국인 비중 증가 종목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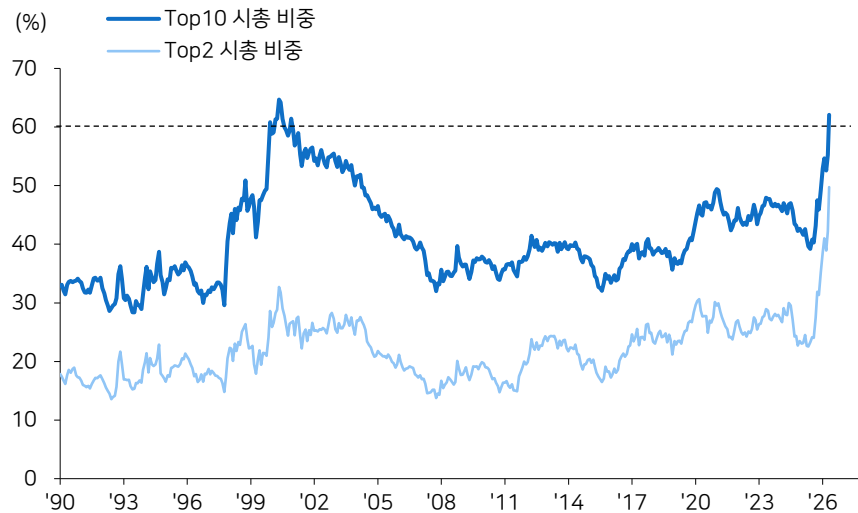
위대한 쏠림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비중 60%

-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쏠림. 시총 상위 10위 합산 비중 60% 돌파. 2000년 6월 이후 26년만
-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 $\sum(\text{시가총액 비중})^2$
- 2000년 6월 고점 778%. 올해 1월 전고점 돌파, 현재는 1,288%
- 과거보다 시총 상위 종목의 쏠림이 더 집중된 양상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비중 합 60% 돌파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허핀달 지수(H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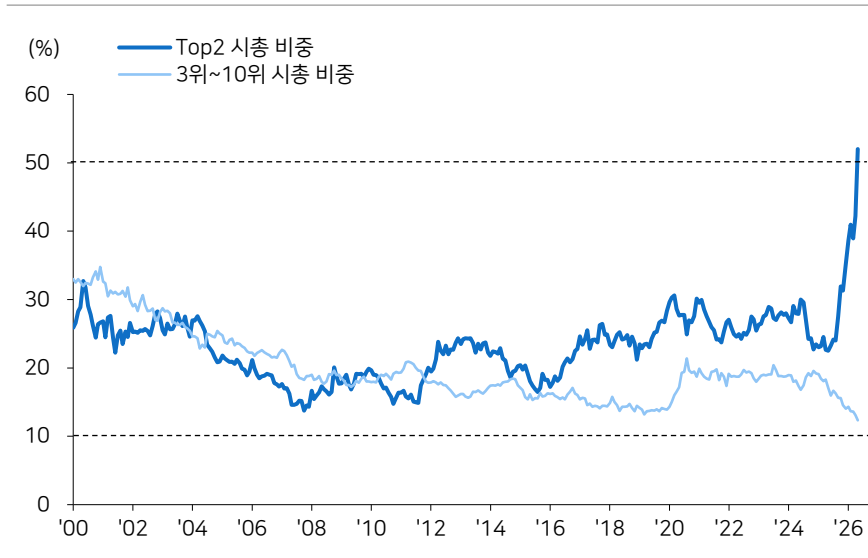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건강한 확산 vs 방어적 로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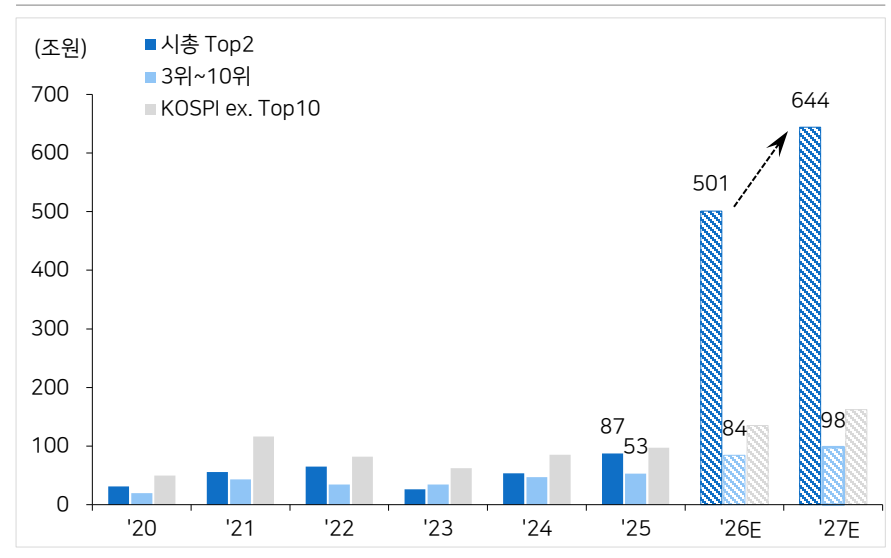
- Top2(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은 50% 돌파. 반대로 나머지 3위~10위 기업은 12% 수준에 불과 각 기업 평균 1.5% 가량
- 2000년 6월 고점 당시 Top2 시총 비중보다 3위~10위 시총 비중 합이 더 컸음 (Top2 31.8% vs 3~10위 32.4%)
- 코스피 Top2(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간 순이익 2026E 501조원, 2027E 644조원. 여전히 +28.5% YoY 성장 기대
- 그에 반해 3위~10위 합산 순이익 2026E 84조원, 2027E 98조원으로 +16.6% YoY 성장 기대. Top2 > 3위~10위
- 쓸림이 극대화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KOSPI Top2 vs 3위~10위 시총 비중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OSPI Top2 vs 3위~10위 연간 순이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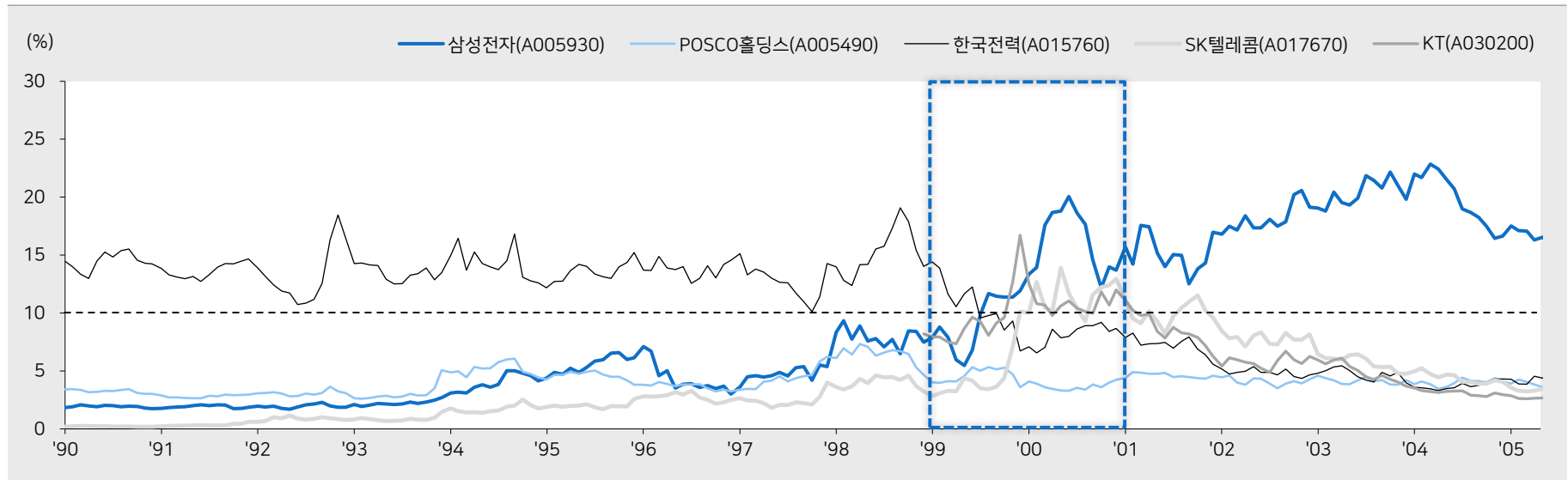


주: 2026년, 2027년은 추정치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한국전력 → 삼성전자 1위의 지위 이전 시기

- '99년~'00년 시가총액 1위 한국전력 → 삼성전자 지위가 이전되는 격동의 시기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적자폭 축소 과정 속 인터넷/무선통신 성장 프리미엄 반영
- 한국통신(KT), SK텔레콤 높은 멀티플 부여받으며 시총 비중 10% 돌파

1999년 시가총액 1위 기업 한국전력 →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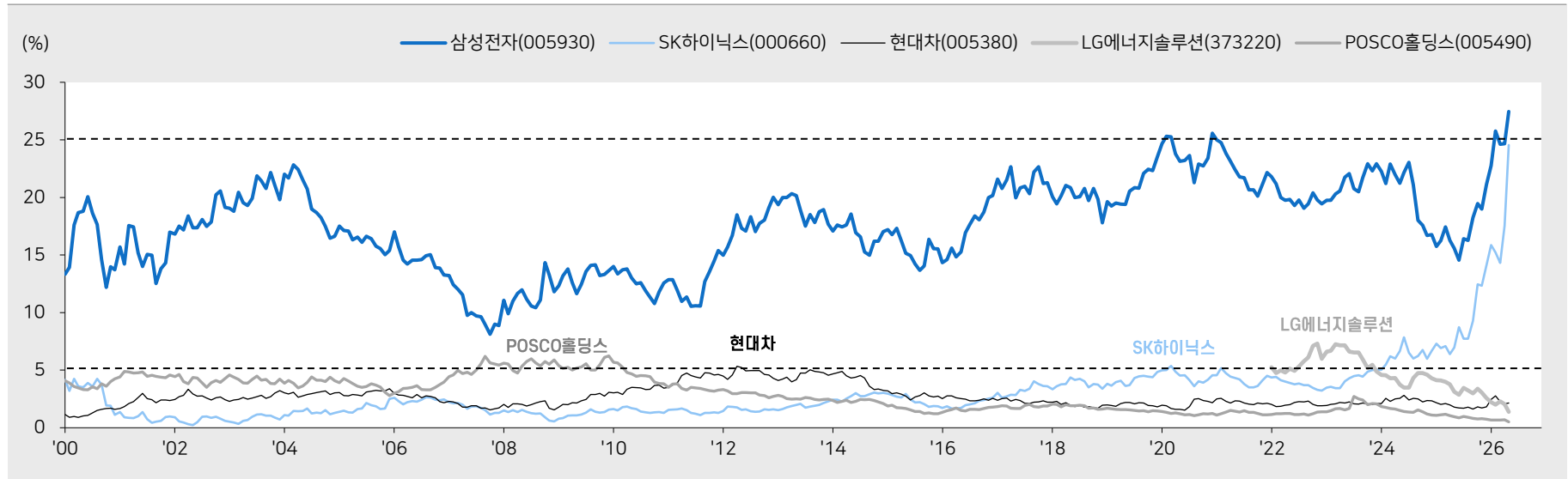


자료: E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의 지위를 SK하이닉스가 위협

-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의 역사에서 2위 기업의 시총 비중은 7%가 한계선
- 5% 돌파 이후 시총 비중 하락이 표준
- 2024년 이후 HBM, 메모리 모멘텀에 SK하이닉스 시총 비중 25% 가까이 근접

삼성전자 1위 왕조 하에서 2위 기업은 7%가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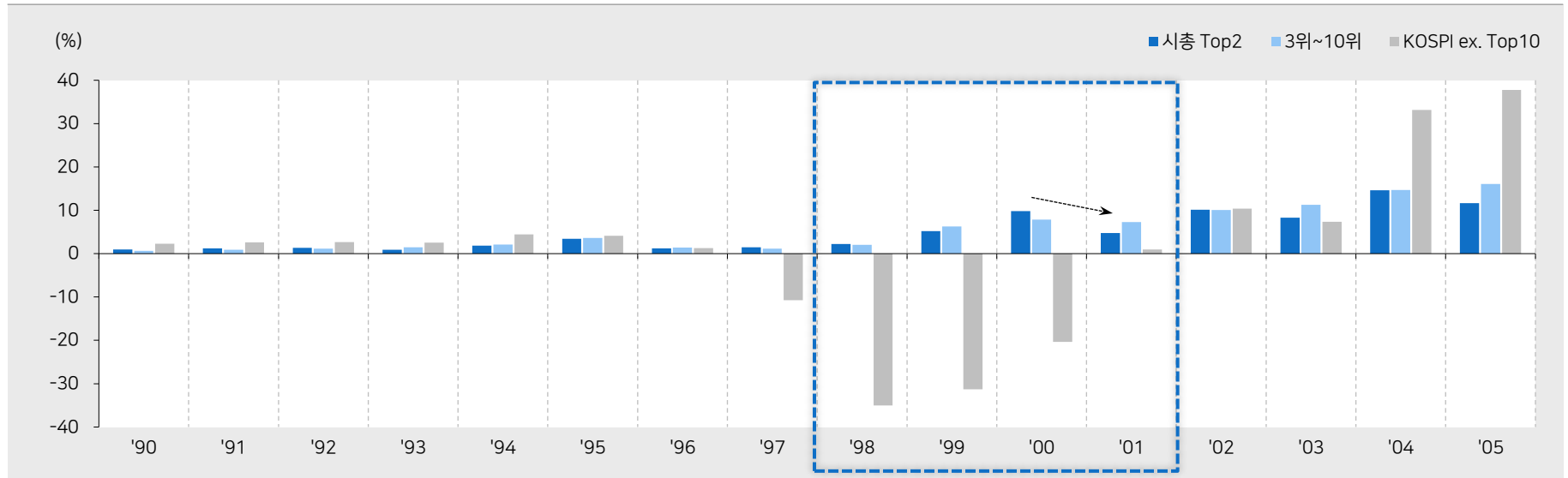


자료: E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시장 쓸림이 건강한 확산으로

- 현재의 시장 쓸림이 건강한 확산으로 이어질 조건은 기존 주도주 급락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어야 함
- '00~'01년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적자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통신주 자금부담 우려, 이익 기대 후퇴에 주도주 급락

KOSPI 시총 Top10 제외 적자폭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2001년 Top10 이익 감소하며 주도주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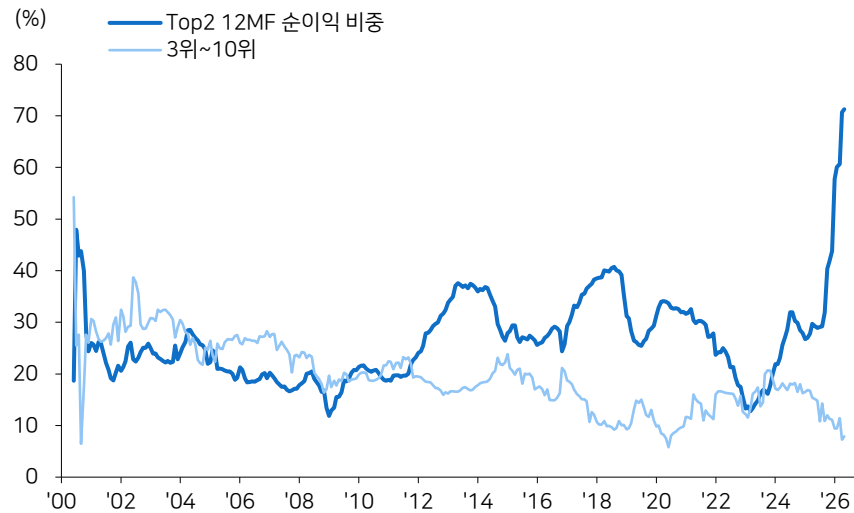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MF 순이익 56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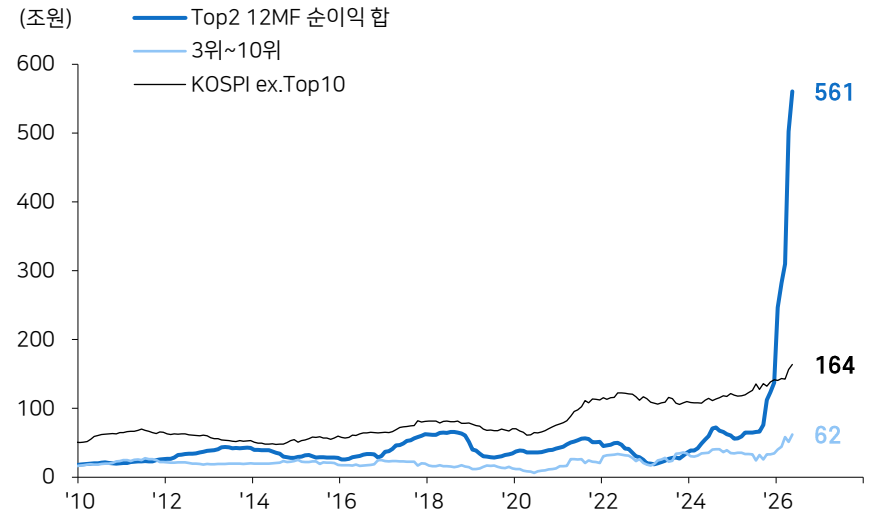
-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개월 선행 순이익 비중 70% 돌파. 전체 787조원 중 561조원이 Top2
- 연초 대비 12개월 선행 순이익 Growth Top2 +309% vs 3위~10위 +78% vs KOSPI ex.Top10 +16%

코스피 시총 Top2 vs 3위~10위 12MF 순이익 비중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시총 Top2, Top10, KOSPI(ex.Top10) 12MF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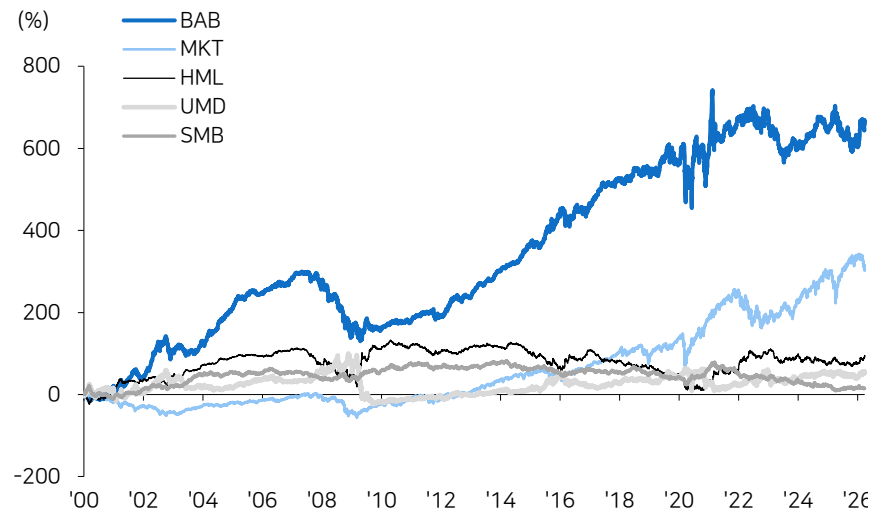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스타일] 장기적으로는 저베타 >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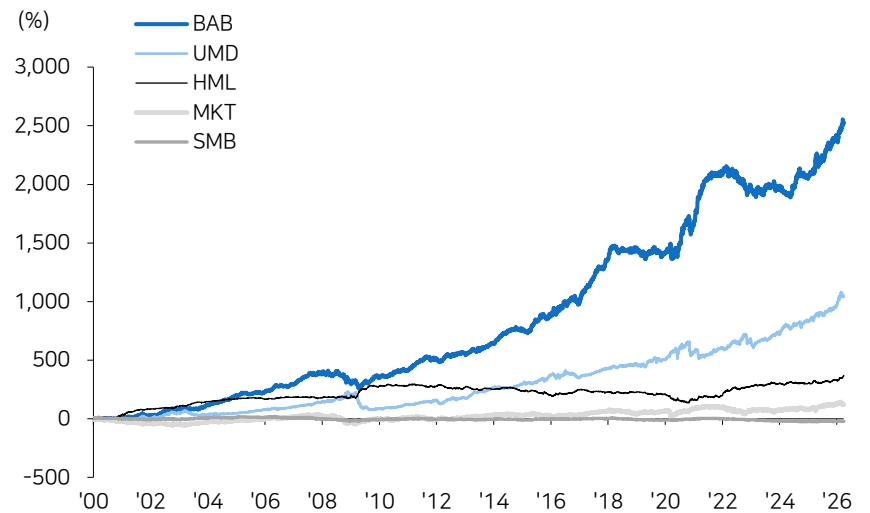
- Long/Short Factor 누적 수익률
- USA: BAB(저베타) > MKT(시장) > HML(밸류) > UMD(모멘텀) > SMB(소형)
- Global ex USA: BAB(저베타) > UMD(모멘텀) > HML(밸류) > SMB(소형)
- 장기적으로 BAB(저베타) > UMD(모멘텀). 특히 모멘텀 반전 위기에는 저베타 매력 ↑

USA Long/Short Factor 누적수익률



자료: AQ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ex USA Long/Short Factor 누적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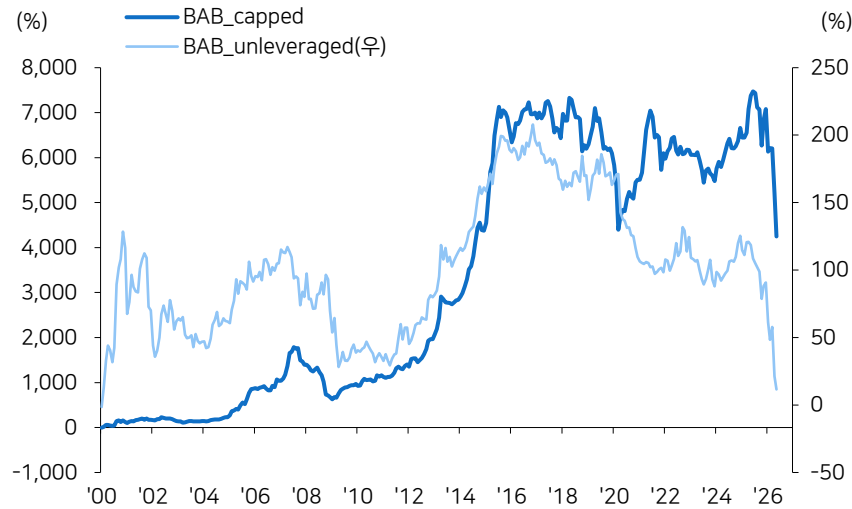


자료: AQ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BAB 성과는 저베타 Long 레버리지 효과가 기여

- AQR/Frazzini-Pedersen의 BAB(Betting Against Beta)는 저베타 Long을 베타만큼 레버리지하고, 고베타 Short를 베타만큼 디레버리지해서 전체 베타를 0에 맞춤
- 저베타(β_L) 값이 0.2 일 경우 $1/\beta_L=5$ 배 만큼 레버리지. 한국 시장에 적용할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 노출
- (BAB_capped) 레버리지 적용 베타 (Max,Min)=(2,0.5)로 적용 시 누적수익률 4,248%
- (BAB_unleveraged) 베타 조정하지 않을 경우 R(Low Beta)-R(High Beta) 누적수익률 12%

KOSPI BAB 레버리지 캡 적용 vs 레버리지 미적용 누적 수익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OSPI BAB 전략별 성과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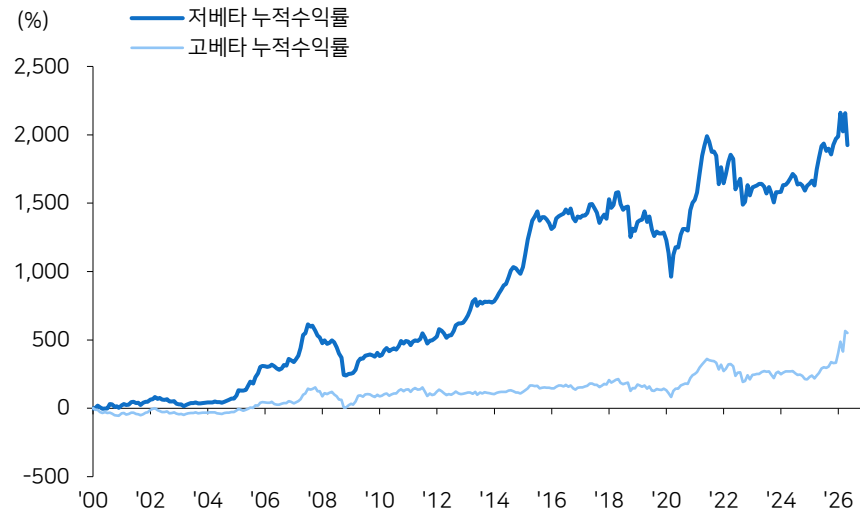
전략	BAB_origin	BAB_capped	BAB_unleveraged
누적수익률(%)	79,423	4,248	12
연환산수익률(%)	28.8	15.4	0.4
연환산변동성(%)	48.0	26.1	18.4
Sharpe Ratio	0.60	0.59	0.02
MDD(%)	-81.4	-61.6	-63.8
승률(%)	58.7	58.0	52.1

주: 2000.01~2026.5.27까지 누적 수익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단일 수익률 기준 Winner > 저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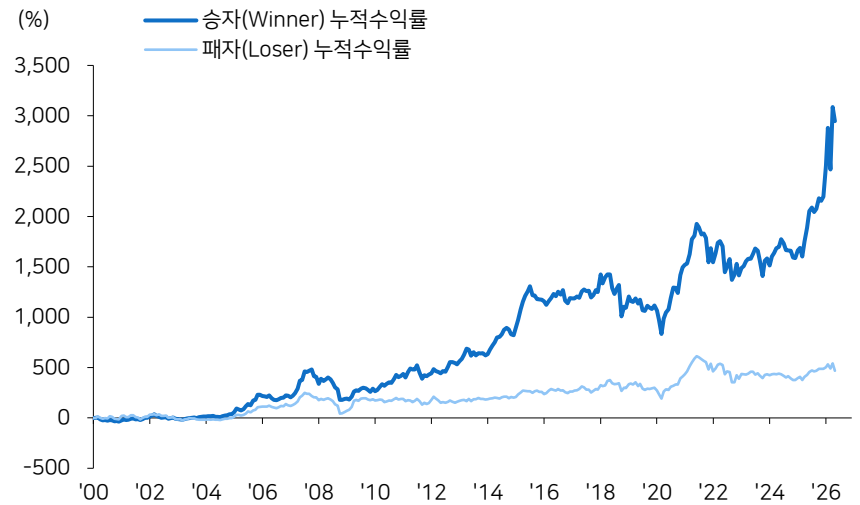
- 장기 누적 성과 저베타 +1,925% vs 승자(Winner) +2,946%
- 승자(Winner) +1,344%p 2025년 3월~ 현재까지의 성과

BAB 저베타 vs 고베타 수익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UMD 승자(Winner) vs 패자(Loser) 누적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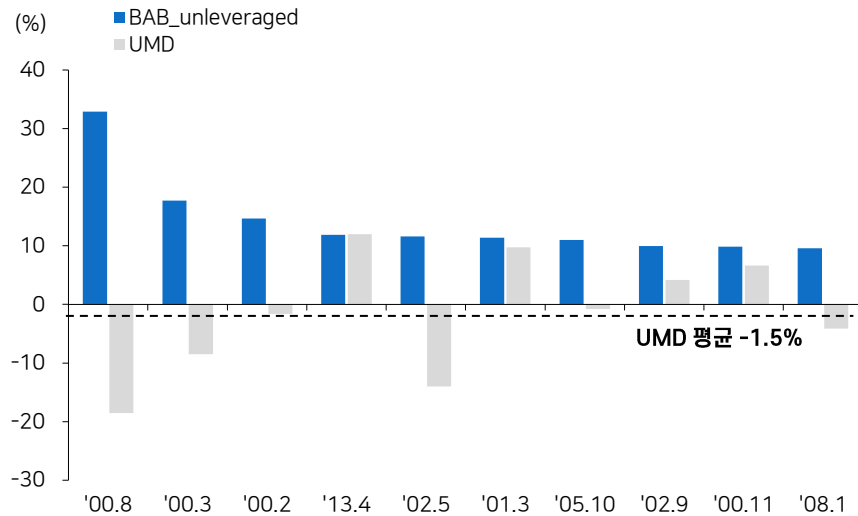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UMD vs BAB 동반 상승 제외하면 상관관계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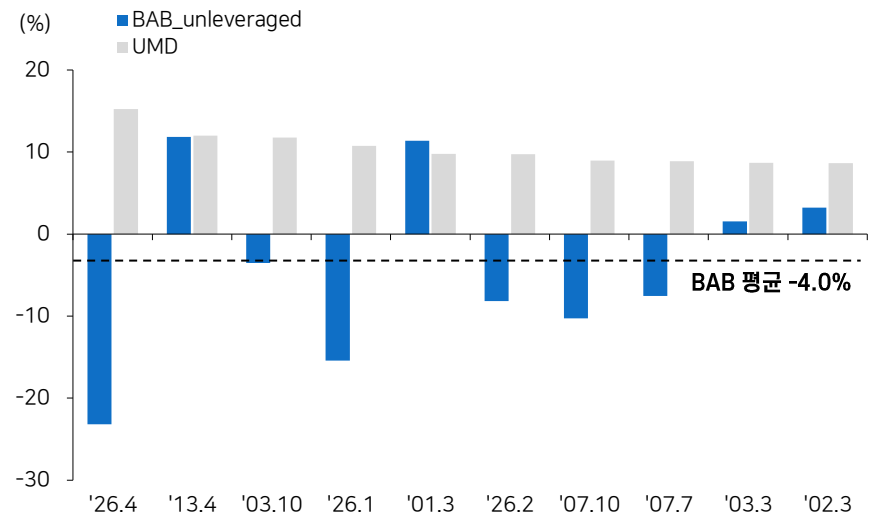
- BAB vs UMD 상관계수 -0.035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
- BAB 팩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Top10의 사례에 UMD 평균 수익률은 -1.5%
- 반대로 UMD 팩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Top10의 사례에 BAB 평균 수익률은 -4.0%
- 동반 상승했던 사례(총 317개월 중 96개월)를 제외하면 상관관계 -0.32. 음의 상관관계

코스피 BAB(저베타) 월간 수익률 Top 10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UMD(모멘텀) 월간 수익률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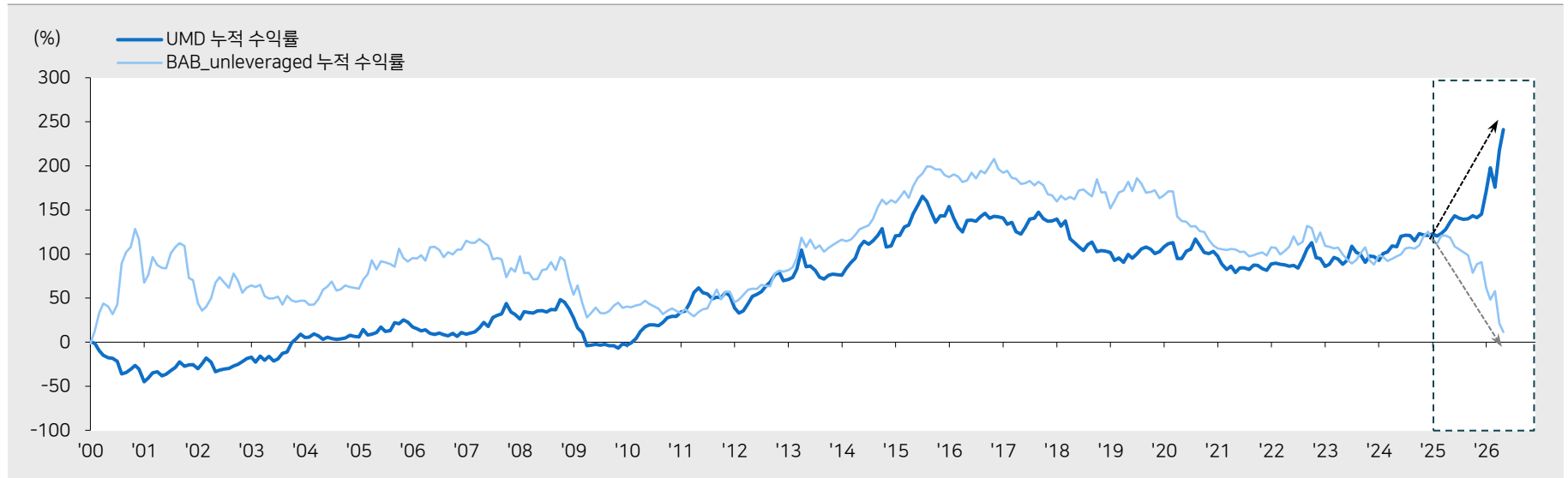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UMD vs BAB 역방향 추세 형성

- 코스피 2025년 이후 UMD(모멘텀) ↑ & BAB(저베타) ↓ 역방향 추세 형성
- Long 저베타는 Short 모멘텀 경향이 강함
- 방어적 로테이션(Long 저베타)은 모멘텀 Reversion 혹은 Crash의 전조가 보여야 접근

KOSPI '25년 이후 UMD > BAB 역방향 추세 형성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건강한 확산 vs 방어적 로테이션

- 모멘텀(UMD) > 저베타(BAB) 선호 장세 지속 예상
- 기대 여건은 1) 실적 추정치 상향이 반도체로부터 2차 주도주 업종에까지 확산, 2) 조선, 전력기기 등 수주 모멘텀

시장 실패 이후 유형별 전개과정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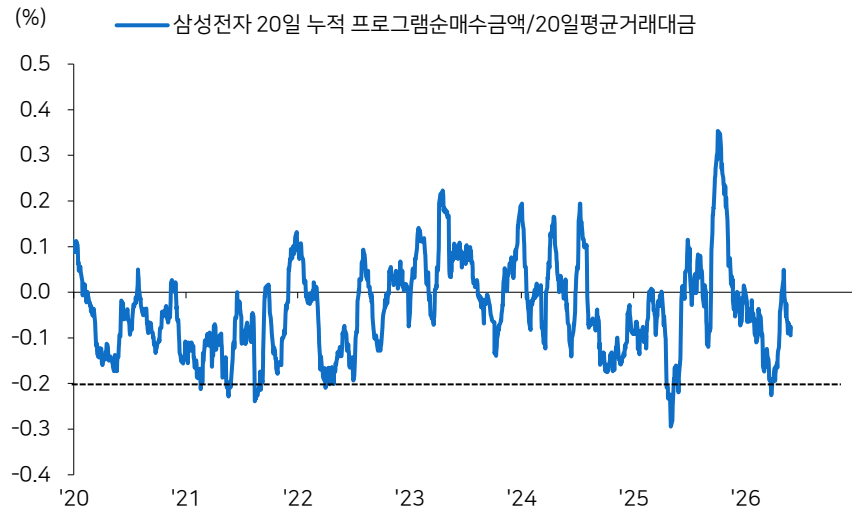
유형	전개 과정	특징
건강한 확산	주도주 상승 이후 이익 개선 및 모멘텀이 다른 섹터로 번짐	주도주 중심 모멘텀 테마 지속
방어적 로테이션	주도주 과열 후 주도주 과열 후 금리 · 경기 부담으로 방어주/가치주 이동	모멘텀 축소, 저베타·퀄리티 선별
버블 붕괴형 확산 실패	주도주 무너지며 시장 전체 하락	위험 선호 후퇴, 약세장 전환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모멘텀 약화 전조: 프로그램 누적 순매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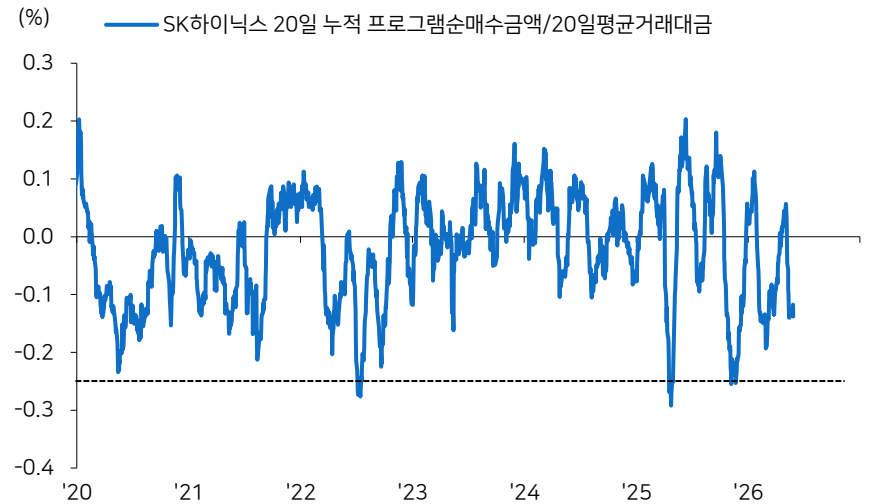
- 펀드 및 ETF 환매 → 프로그램 순매도로 연결
- 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20일 누적 프로그램 순매수금액 임계점. 삼성전자는 -0.2%, SK하이닉스는 -0.25% 수준
- 해당 수준 하향 돌파 시 모멘텀 약화 및 추가 환매 가능성

삼성전자 20일 누적 프로그램순매수금액/20일평균거래대금



자료: CHECK,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20일 누적 프로그램순매수금액/20일평균거래대금



자료: CHECK,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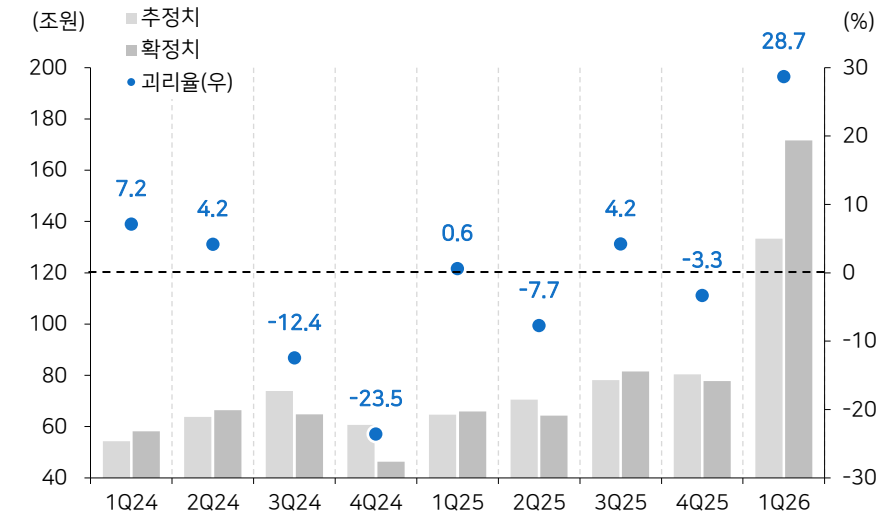
숫자로 증명



[실적] 코스피 1Q26 실적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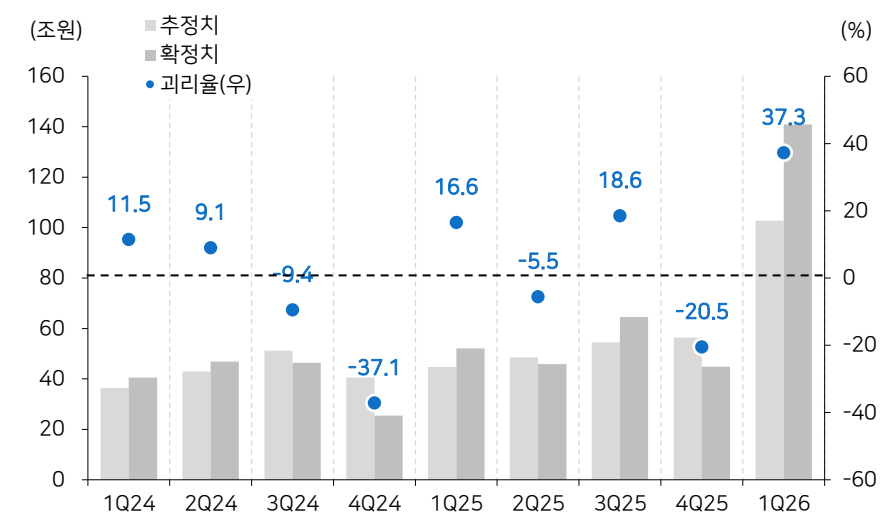
- 1Q26 분기말(3월말)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 +28.7%, 순이익 +37.3% 상회
- 평균적으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 높음 감안하더라도 훨씬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 퍼포먼스

코스피 1Q26 영업이익 발표치,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



주: 추정치는 각 분기말(3,6,9,12월말)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1Q26 순이익 발표치,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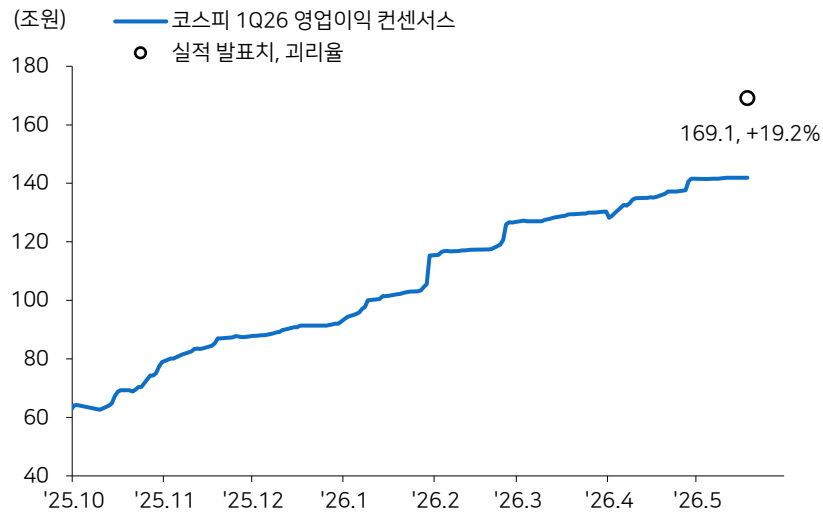


주: 추정치는 각 분기말(3,6,9,12월말)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1분기 실적 시즌 기간 이익 추정치 상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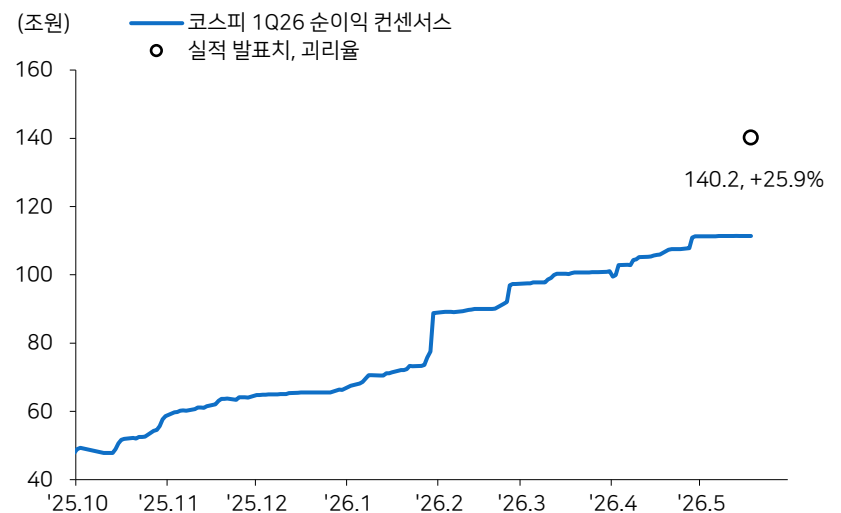
- 분기말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 지속. DRAM 가격 상승 기반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 지속
- 코스피 1Q26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19.2%/ 순이익 +25.9% 상회

코스피 1Q26 영업이익 발표치,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



주: 1Q26 순이익 컨센서스 3개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에 한함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1Q26 순이익 발표치,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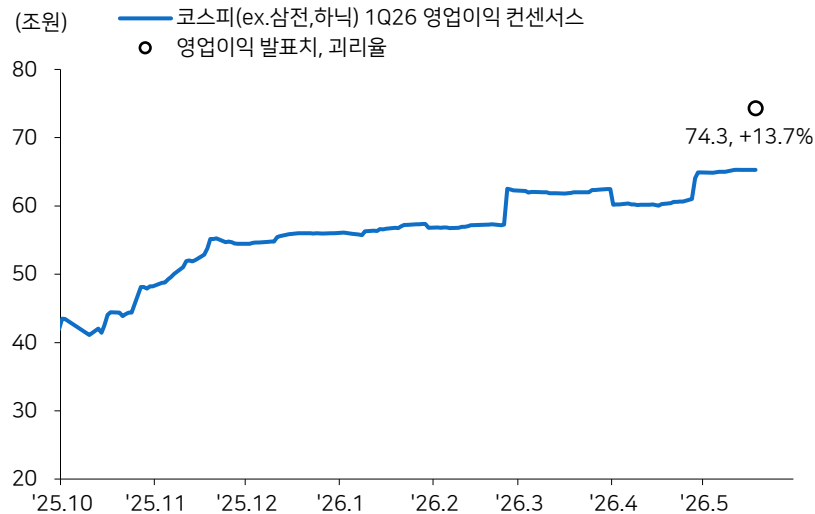


주: 1Q26 순이익 컨센서스 3개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에 한함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해서 보더라도 실적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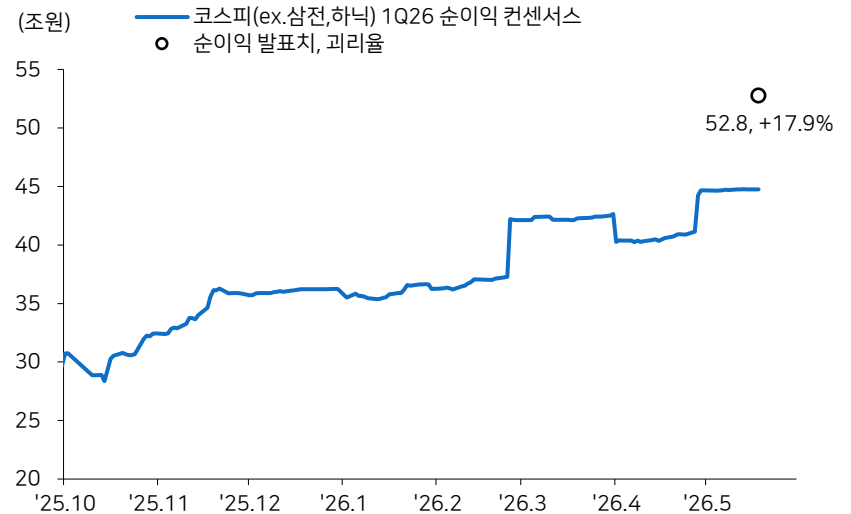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보면 1Q26 영업이익 74.3조원, 컨센서스 +13.7% 상회
- 순이익 52.8조원, 컨센서스 +17.9% 상회
-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Q26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초과(각각 56%, 62%)
-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외하고 보더라도 코스피 실적 양호

코스피 1Q26 영업이익 발표치,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



주: 1Q26 순이익 컨센서스 3개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에 한함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1Q26 순이익 발표치,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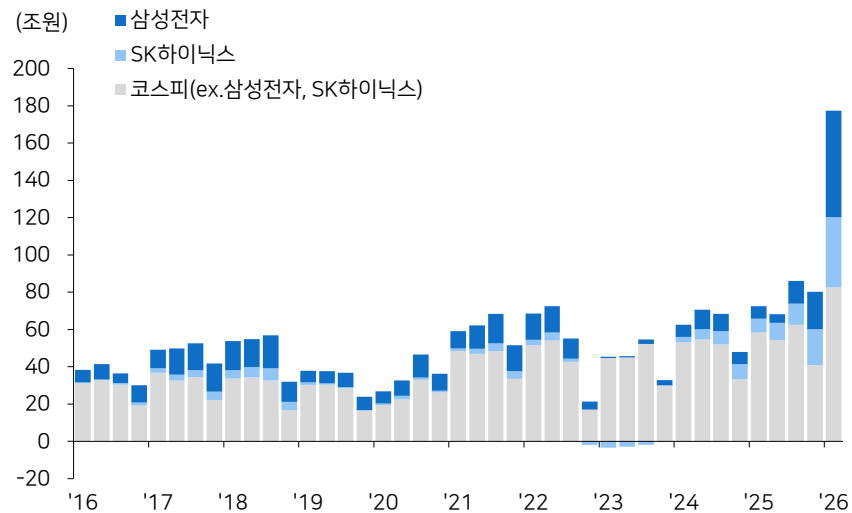


주: 1Q26 순이익 컨센서스 3개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에 한함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1Q26 실적은 확산의 가능성 열려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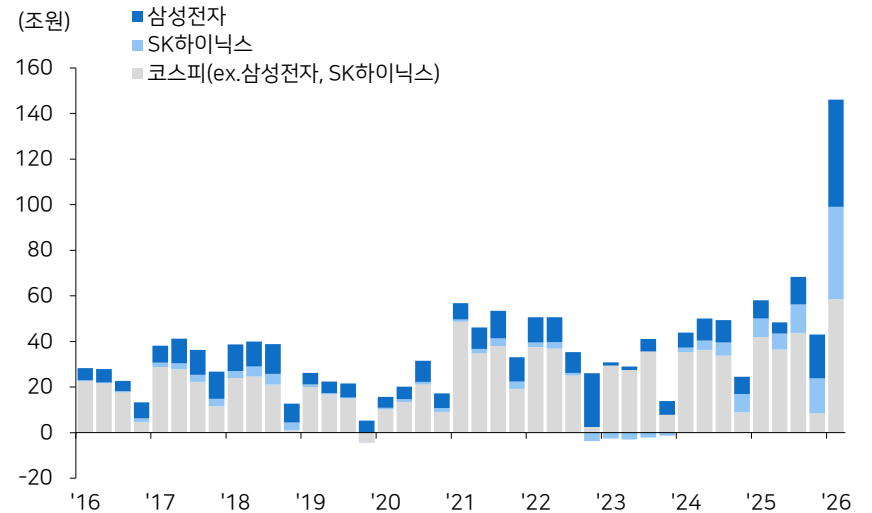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QoQ/YoY 모두 강한 상승률
- Top2를 제외하고 보아도 코스피 이익 성장세 뚜렷(영업이익 기준 QoQ +41.3%, YoY +101.5%)
- 건강한 확산의 가능성 열려있음. 관건은 지속가능성

2026년 1분기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QoQ/YoY 모두 강한 상승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를 제외하고 보아도 코스피 이익 성장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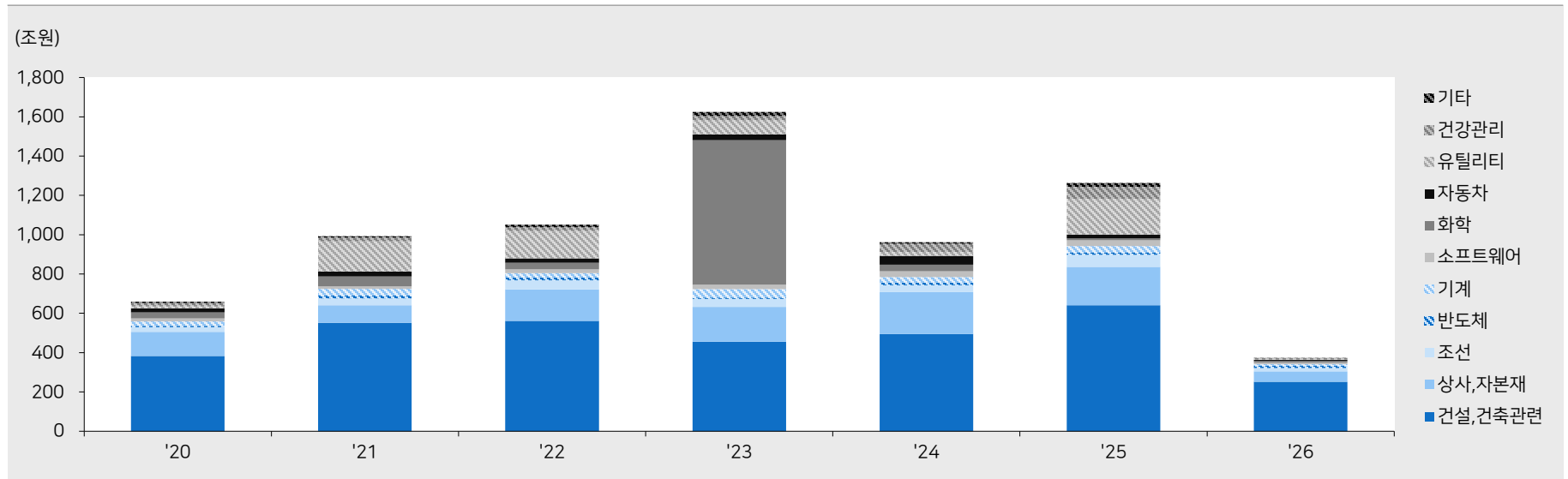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주 공시] 단일판매·공급계약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해지 공시. 계약금액이 코스피 일반 상장사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이 경우 의무 공시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대규모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이면 의무 공시
- 그 외 기업이 투자판단에 중요하다고 볼 경우 자율 공시 가능
- 국내 계약 금액 상위 업종은 건설/건축, 상사/자본재, 조선, 반도체 순

코스피 상장사 업종별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국내 계약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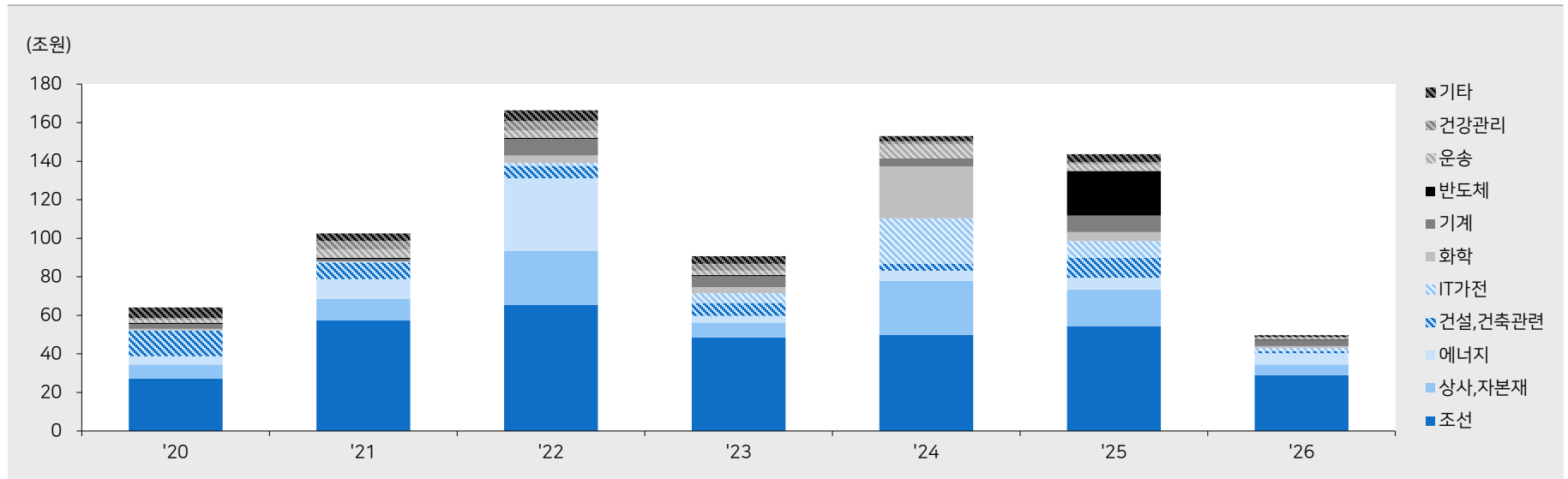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주 공시] 단일판매·공급계약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해외 계약 금액 2020년~2026년 합산 770조원
- 해외 계약 금액 상위 업종은 조선, 상사/자본재, 에너지, 건설/건축 순

코스피 상장사 업종별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해외 계약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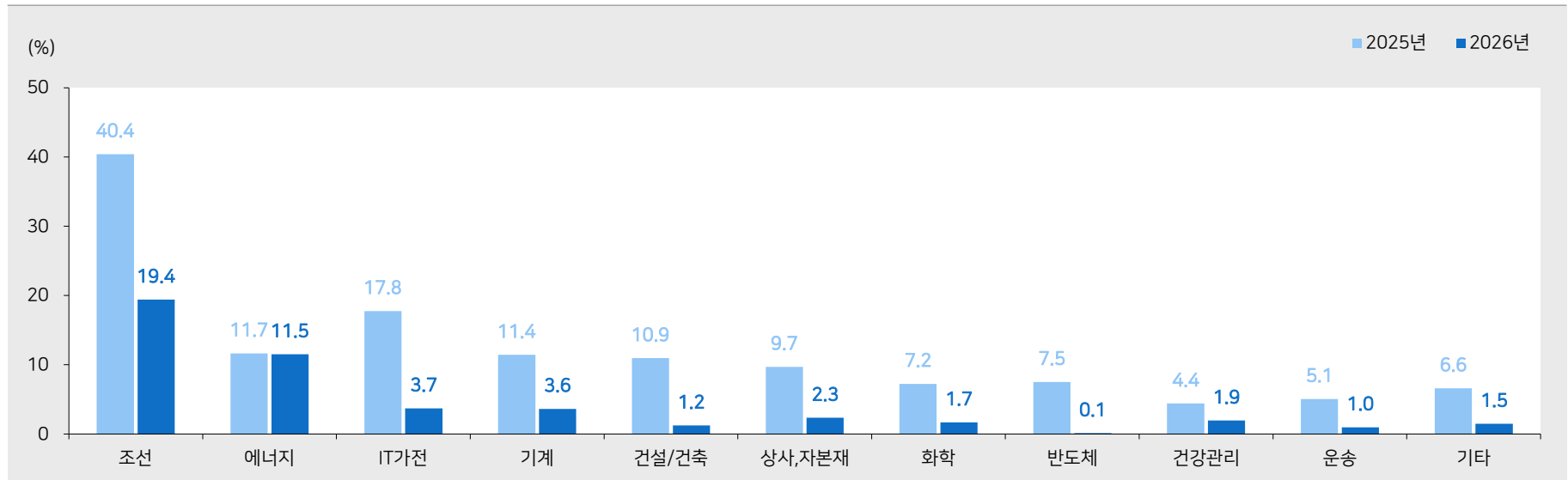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주 공시] 단일판매·공급계약

-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 해외 계약 금액 기준
- 2025년/2026년 계약금액 비율: 조선 40.4%/ 19.4%, 에너지 11.7%/ 11.5%, IT가전 17.8%/ 3.7%, 기계 11.4%/ 3.6%
- 계약조건, 기간별로 매출 인식되는 부분은 상이하겠으나 미래 매출이 증명된다는 점 긍정적

코스피 상장사 업종별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해외 계약 금액 비율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주 공시] 단일판매·공급계약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해외 계약 금액 상위 종목

No	Code	Name	WI26 업종명	매출액(조원)		해외 계약금액(조원)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12MF PER (배)	12MF PBR (배)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1	A329180	HD현대중공업	조선	14.5	17.6	10.9	11.0	75.3	62.4	24.3	6.0
2	A042660	한화오션	조선	10.8	12.8	12.3	3.9	114.0	30.8	24.8	4.9
3	A010140	삼성중공업	조선	9.9	10.7	10.2	4.7	103.3	44.5	20.9	4.4
4	A267250	HD현대	조선	67.8	71.3	9.3	3.4	13.7	4.7	9.9	1.7
5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25.5	29.9	9.3	3.4	36.2	11.2	8.2	1.8
6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IT가전	25.6	23.7	8.0	-	31.2	-	222.1	4.4
7	A010950	S-Oil	에너지	36.6	34.2	1.9	5.5	5.1	16.1	6.6	1.1
8	A034020	두산에너빌리티	기계	16.2	17.1	4.8	-	29.6	-	178.2	8.3
9	A439260	대한조선	조선	1.1	1.2	1.4	1.7	131.5	138.1	8.1	1.7
10	A066970	엘앤에프	IT가전	1.9	2.2	-	1.6	-	74.6	298.9	8.6
11	A112610	씨에스윈드	에너지	3.1	2.9	1.4	0.1	46.6	4.6	10.4	1.5
12	A082740	한화엔진	조선	1.2	1.4	0.9	0.5	77.3	39.7	26.1	6.8
13	A010120	LS ELECTRIC	기계	4.6	5.0	1.0	0.5	20.9	9.9	68.9	14.6
14	A083650	비에이치아이	에너지	0.4	0.8	1.4	0.1	341.2	7.3	24.7	7.8
15	A298040	효성중공업	기계	4.9	6.0	0.3	0.9	5.4	15.6	36.5	9.8
16	A178320	서진시스템	기계	1.2	1.1	0.5	0.4	38.3	36.6	33.0	5.8
17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3.3	4.1	0.4	0.3	12.0	6.7	36.6	12.7
18	A006260	LS	기계	27.5	31.9	0.3	0.2	1.3	0.7	26.5	2.4
19	A100090	SK오션플랜트	에너지	0.7	1.0	0.6	0.0	83.9	0.0	19.1	1.3
20	A071970	HD현대마린엔진	조선	0.3	0.4	0.1	0.4	20.7	97.0	16.8	3.7

주: WI26업종 조선, 에너지, IT가전, 기계. 해외 계약금액 2025년, 2026년 합산 상위 20개 종목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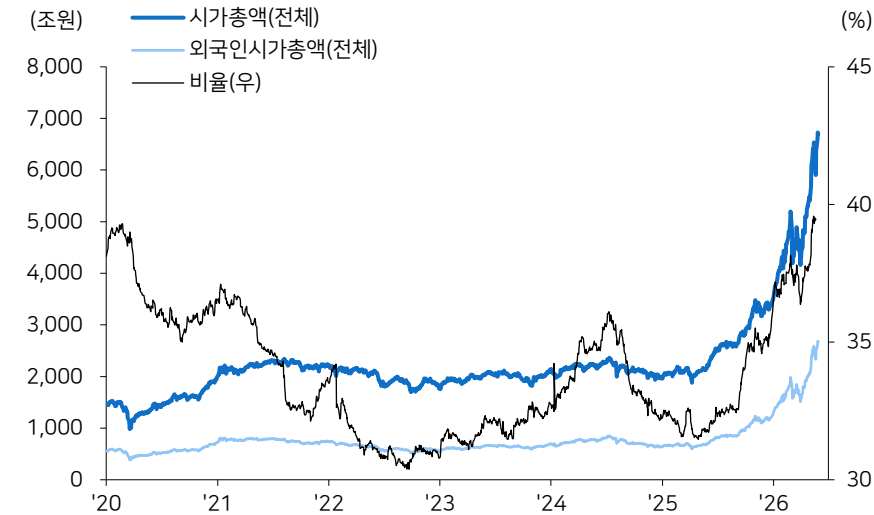


위대한 쏠림 속 알파(α) 전략

외국인 삼전+SK하닉 매도, KOSPI (ex.삼전,SK 하닉)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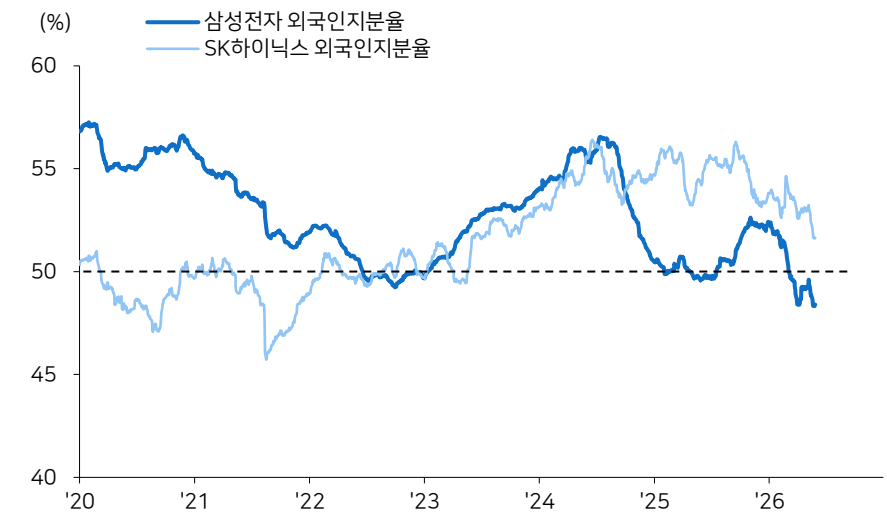
-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2025년 5월 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40%에 근접
-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 지속되며 삼성전자는 2022년 10월(49.3%) 저점 돌파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상승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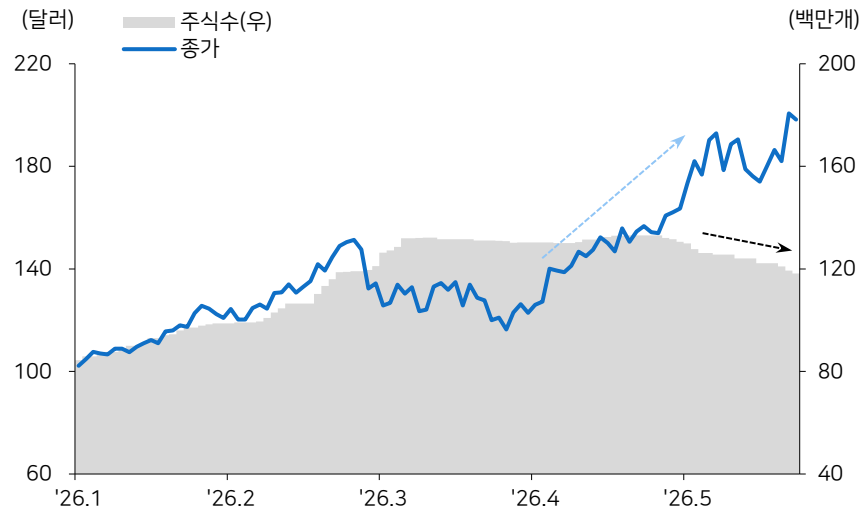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 리밸런싱 매도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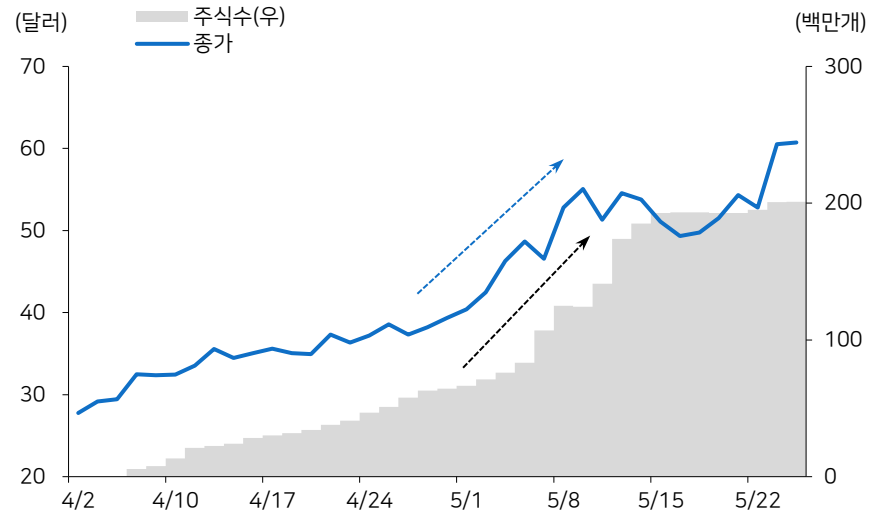
- iShares MSCI Korea ETF는 MSCI Korea 25/50 지수를 추종
- (IRC 851(B)(3) 분기말 자산분산 요건) 한 종목의 비중이 25%를 넘지 않게, 5%를 초과하는 종목의 합이 50%를 넘지 않게 설정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 비중 상회 → 리밸런싱 매도 압력
- Roundhill Memory ETF(DRAM) 5월 MTD 주가 +54.1%, 상장 주식수 +3.1배 증가

iShares MSCI Korea ETF 주가 및 주식 수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Roundhill Memory ETF 주가 및 주식 수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이 지분 늘려가는 기업

- 리밸런싱 매도 압력 속 알파(α) 전략 = 외국인 익스포져 적은 종목(UW) 중 외국인 비중 증가 종목
- Underweight: 시총비중 > 외국인 시총 비중 =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코스피 전체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코스피 시총 1조원 이상 기업, 외국인 Overweight/Underweight 구분

No	Code	Name	시가총액 (조원)	외국인시가총액 (조원)	시총비중 (A, %)	외국인 시총비중 (B, %)	편차 (B-A, %p)	구분
1	A005930	삼성전자	1,755.7	782.9	29.5	35.4	5.9	OW
2	A000660	SK하이닉스	1,243.7	647.5	20.9	29.2	8.4	OW
3	A402340	SK스퀘어	134.6	65.8	2.3	3.0	0.7	OW
4	A005380	현대차	138.8	33.1	2.3	1.5	-0.8	UW
5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93.6	4.9	1.6	0.2	-1.4	UW
6	A009150	삼성전기	74.8	28.4	1.3	1.3	0.0	OW
7	A034020	두산에너지빌리티	67.9	16.9	1.1	0.8	-0.4	UW
8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6.3	29.9	1.1	1.3	0.2	OW
9	A329180	HD현대중공업	62.8	8.7	1.1	0.4	-0.7	UW
10	A032830	삼성생명	62.4	14.6	1.0	0.7	-0.4	UW
11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62.3	7.6	1.0	0.3	-0.7	UW
12	A028260	삼성물산	62.0	19.1	1.0	0.9	-0.2	UW
13	A000270	기아	60.5	23.2	1.0	1.0	0.0	OW
14	A105560	KB금융	57.0	43.2	1.0	2.0	1.0	OW
15	A012330	현대모비스	47.6	19.6	0.8	0.9	0.1	OW
16	A006400	삼성SDI	47.8	12.3	0.8	0.6	-0.2	UW
17	A055550	신한지주	44.6	27.3	0.7	1.2	0.5	OW
18	A068270	셀트리온	40.5	9.8	0.7	0.4	-0.2	UW
19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39.5	14.3	0.7	0.6	0.0	UW
20	A034730	SK	37.8	11.2	0.6	0.5	-0.1	UW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이 지분 늘려가는 기업

- 리밸런싱 매도 압력 속 알파(α) 전략 = 외국인 익스포져 적은 종목(UW) 중 외국인 비중 증가 종목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외 계약금액 상위 종목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지빌리티,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Underweight 기업 중 작년 4월 대비 외국인 지분을 상향 기업

No	Code	Name	WI26업종명(대)	시가총액 (조원)	외국인시가총액 (조원)	시총비중 (A, %)	외국인 시총비중 (B, %)	편차 (B-A, %p)	외국인 지분을 변화 (%p)
1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IT가전	93.2	4.9	1.6	0.2	-1.4	0.9
2	A034020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	71.5	16.9	1.1	0.8	-0.4	1.3
3	A329180	HD현대중공업	조선	71.4	8.7	1.1	0.4	-0.7	3.9
4	A032830	삼성생명	보험	72.9	14.6	1	0.7	-0.4	1.6
5	A028260	삼성물산	상사,자본재	68.2	19.1	1	0.9	-0.2	3.2
6	A068270	셀트리온	건강관리	44.1	9.8	0.7	0.4	-0.2	1.9
7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42.3	14.3	0.7	0.6	0	4.7
8	A034730	SK	에너지	46.5	11.2	0.6	0.5	-0.1	6.4
9	A005490	POSCO홀딩스	철강	35.5	11	0.6	0.5	-0.1	1.9
10	A298040	효성중공업	기계	37.4	9.1	0.6	0.4	-0.1	12.6
11	A066570	LG전자	IT가전	38.6	10.5	0.5	0.5	-0.1	3.6
12	A010130	고려아연	비철,목재등	29.8	8	0.5	0.4	-0.1	15.7
13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29.8	9.6	0.5	0.4	0	2.4
14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25.5	5.4	0.4	0.2	-0.2	4.4
15	A010140	삼성중공업	조선	26	7.7	0.4	0.3	-0.1	0.3
16	A051910	LG화학	화학	24.8	9.1	0.4	0.4	0	5.5
17	A000150	두산	상사,자본재	25.8	4.6	0.5	0.2	-0.2	7.5
18	A064350	현대로템	상사,자본재	22.5	7.6	0.4	0.3	0	4.5
19	A267250	HD현대	조선	22.3	5.5	0.4	0.2	-0.1	5
20	A096770	SK이노베이션	에너지	20.9	2.9	0.3	0.1	-0.2	0.8

주: 음영은 WI26업종 조선, 에너지, IT가전, 기계. 해외 계약금액 2025년, 2026년 합산 상위 20개 종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